

입학사정관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안 고찰

오 정 은 (Oh, Jung-eun) *

(E-mail : oberry@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12년 2월 29일
논문심사일 : 2012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12년 4월 15일

* 학위취득대학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직 : 한양대학교 시간강사

입학사정관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안 고찰

〈국문요약〉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재 선발 시 정해진 지식을 측정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와 같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대학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는데 입학사정관 평가를 통해 매년 선발되는 인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대변해주는 좋은 예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전체 선발인원 대비 적지않은 비율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잠재력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 특히 서류평가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류평가의 근간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는 대학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한 고교, 대학 간 인식 차이는 평가의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인식을 통해 학생의 학교활동이 서류로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서류의 기재내용은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대학의 입학사정관 평가 시 평가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서류의 기재내용이 얼마나 타당하게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 앞으로 입학사정관 평가 및 대입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주제어] 입학사정관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타당성, 대입정책

I. 서론

학생의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강조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서류 평가는 가장 기본이 되며 동시에 영향력 있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점수 위주의 일률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보다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교과 및 교과외활동 상황은 대학의 인재 선발을 위한 핵심적인 평가 자료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생의 학교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해 고교-대학 간, 학생-교사 간, 나아가서는 교사 간 합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류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김홍원 2005).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생활기록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교과영역과 교과외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주로 다루지는 교과영역의 경우 교과의 이수단위수, 원점수 및 평균점수, 수강자수 대비 석차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정량적 평가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반면 교과외영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교과학습발달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루지며 학생의 인성, 흥미, 적성, 특기, 태도 등 상대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위한 종합적 자료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교과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생활기록은 정성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서 학생 선발 등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성적 기재내용에는 기록하는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다소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선 평가내용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구가 타당하고 신뢰로워야 한다(강승호·김명숙 외 2003; 황정규 1984). 특히 이러한 문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에 있어서는 더욱 예민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학생의 잠재능력을 서류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으나, 여기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인식분석을 통해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서류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능해보고, 앞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 평가가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평가의 타당성이란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자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로 어떻게 옮겨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을 재고해 볼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대학의 입학사정관 평가 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평가를 위한 것인지 평가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교에서 학생의 활동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자 간 오류, 서류의 기재내용이 대학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 간 오류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입학사정관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이 얼마나 타당하게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가능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보다 바람직한 입학사정관 평가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입학사정관 평가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과 낮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신현석·안선희 외 2010),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입학사정관 서류 평가의 근간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시 교과외활동이 학생의 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는데(김석우·김성숙 외 2009),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혹은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척도 개발을 제안하는 수준의 연구가 다수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별로 기재된 내용을 세세히 분석하고 기재된 내용이 실제 활동과 얼마나 사실 관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평가와 연관하여 실제 학생의 학교활동 내용이 정확하게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실제 교과외활동에 대한 교사 간 인식 차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기재내용에 대한 교사 간 인식 차이는 결과적으로 평가 결과를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하게 만드는 오차 원인이 된다. 같은 항목에 대한 기록을 하더라도 기록자의 관점이 다르다면 일관된 항목 특성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기재될 것이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별 기록된 내용 간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류 평가의 타당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입학사정관 평가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입학사정관제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성태제·권승아 2009).

본 연구는 학생의 학교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실제 입학사정관 평가에 활용함에 있어 실제 학생의 학교활동과의 연관성을 찾아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기재된 내용을 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우선 고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학교활동에 대한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이 어떠한 역량에 준거하여 기재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이 어떠한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볼 것이다. 현재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진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집담면접을 실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역량 및 수준,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내용 등 다양한 변인을 중심으로 항목 별 기재내용이 분석될 것이다. 이는 고교 교사가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과 입학사정관의 평가내용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과정으로 학생의 잠재능력을 강조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성적 평가에 있어 이 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평가의 타당성이 좌우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입학사정관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면 평가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각 대학의 평가 준거에 비춰 적합한 부분만을 선별해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인재상에 맞는 인재 선발은 대학이 추구하는 선발의 궁극적 목표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학교생활기록부 및 입학사정관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내실 있는 대학의 평가체제 마련이 가능해진다. 학생의 학교활동에 대한 교사의 정확한 기록과 사실 관계의 연관성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고교 및 대학 간에 정착된다면 입학사정관 평가의 실제적인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바람직한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II. 관련 연구 동향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평가가 도입되었고, 앞으로도 그 활용은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글로벌화 되면서 정해진 지식을 측정하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통해 잠재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허창구·신강현 2010).

2007년 시범적으로 10개 대학에서 실시하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2008년에 40개의 대학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매년 참여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입학사정관 양성 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신규 입학사정관의 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정성적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연·김시라 2009).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입시 현황이 어떠한지 논하거나(박혜림 2009), 국내와 외국의 대학 입학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박선형·박남기 2008) 등 입학사정관제와 대학 입시 전반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대학의 확고한 인재상 정립 및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신현석·안선희 외 2010),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김성천·박종희 외 2006) 등 입학사정관 평가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연구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학사정관 평가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기본적인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으로 나뉘는데 입학사정관 평가에는 점수위주의 교과영역보다는 다양한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과영역을 정성적 평가의 근거 자료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비교과영역은 크게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나뉘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다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된다. 수상경력 및 자격증, 인증 관련 기록은 201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교외상의 입력을 제한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합한 개념으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과외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 및 잠재력을 얼마나 개발, 신장시켰는지를 중심으로 기록된다. 자율성, 타인에 대한 배려, 나눔,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처

럼 학교생활기록부는 다양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교사 역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영역은 훌륭한 자료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최현섭 2005). 또한 서류평가만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세이, 포트폴리오, 활동결과물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거나, 면접, 발표, 토론 등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석우·김성숙 외 2009).

입학사정관제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서부터 입학사정관의 역할, 대학입시제도 분석,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 및 평가, 잠재력 평가에 대한 교과외활동 내용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한계는 시사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실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을 나누어 본다거나(김석우·김성숙 외 2009), 실제 평가에 항목별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김수연·김시라 2009).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이 학생의 어떠한 역량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평가자로서 입학사정관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평가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 수준을 올리기 위한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일회적으로 제안된 교육 정책이라기보다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시대적 요구이다(교육혁신위원회,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초창기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는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함으로써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 교육 환경이 음성적인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과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입학사정관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량화되지 않은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수준 및 평가에 대한 교사 및 학생, 학부모로부터 불신도 관리해야 한다(정일환 2008).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외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방법적 측면은 타당한 것인지 등 입학사정관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사적 수준의 연구를 넘어 앞으로는 대입 전형 요소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학생, 교사 및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의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계획 수립

학교생활기록부가 입학사정관 평가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 및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계획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입학사정관제 동향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헌 및 연구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찾아내어 연구 도구를 개발하는 것, 개발된 연구 도구를 직접 활용하고,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연구도구 개발

입학사정관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안 고찰 147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조사연구이며, 설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집단면담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 설문이 종료된 후, 설문의 내용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 2차 설문을 위한 문항이 구성되었다. 재구성된 문항을 바탕으로 2차 설문이 이루어졌다. 1차 및 2차 설문 중 응답 내용 및 응답률이 미비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층집단면담이 실시되었다. 심층집단면담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학생의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수한 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초점을 두고 질의 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3. 조사연구 실시

본 연구는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규모로 구분하였을 때 시(市) 단위와 읍(邑) 이하 단위로 나뉘었고, 여기에 소재한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시(市) 단위 규모 소재 학교는 전체의 82%, 읍(邑) 이하 단위 규모 소재 학교는 전체의 18%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고교 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 교사는 항목 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제로 기재 양상은 어떠한지 등을 양적 및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심층집단면담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랜 진학 및 진로 지도 경험을 가진 교사로 구성하였으며, 다섯 명씩 여섯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 별로 교사 5인 외에 진행자 1인이 참여하여 원활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과정은 모두 녹취되었으며, 추후 전사과정을 통해 모두 기록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48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5집

1.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 역량 및 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표 1>

<표 1> 수상경력 항목의 요구 역량에 관한 설문 결과

수상경력 항목						
역량 중요도순	1	2	3	총빈도	결과값	역량 순위
리더십	2	9	2	13	26	
창의력	4	8	5	17	33	
공동체의식	2	2	1	5	11	
자율성	3	6	6	15	27	
자기주도력	6	18	0	24	54	
도전정신	12	15	5	32	125	4
성실성	25	13	22	60	123	5
자기회복력	0	0	0	0	0	
학업능력	62	18	1	81	223	1
목표의식	16	38	19	73	143	2
성장잠재력	12	18	0	30	72	
봉사	3	3	3	9	18	
전공적합성	23	34	0	57	137	3
기획력	0	3	6	9	12	

수상경력 항목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알아본 결과 설문에서

제시된 역량 별 중요도 순위에 따라 <표 1>과 같은 빈도의 응답이 나왔다. 빈도수를 중심으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량 별 최종 결과값이 산출되었다. 가중치는 응답자가 선택한 중요도 순위에 따라 3배수, 2배수, 1배수로 부여되었다. 그 결과 수상경력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은 학업능력, 목표의식, 전공적합성, 도전정신, 성실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수상경력 항목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나머지 항목들의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표 2>

<표 2>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 역량에 관한 설문 결과

항목 중요도순	1	2	3	4	5
수상경력	학업능력	목표의식	전공적합성	도전정신	성실성
자격증/인증취득	학업능력	목표의식	전공적합성	도전정신	성실성
자율활동	자기주도력	리더십	성실성	공동체의식	기획력
동아리활동	공동체의식	자기주도력	성실성	리더십	기획력
봉사활동	이타심	공동체의식	성실성	자기주도력	자기회복력
진로활동	목표의식	전공적합성	자기주도력	도전정신	기획력
독서활동	자기주도력	전공적합성	성실성	성장잠재력	창의력
종합의견	성실성	성장잠재력	공동체의식	리더십	학업능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경력 항목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향 항목은 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같게 나타났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역량을 학업능력, 목표의식, 전공적합성, 도전정신, 성실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항목은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

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다. 자율활동의 경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역량의 순으로 자기주도력, 리더십, 성실성, 공동체의식, 기획력 등이 제시되었다.

동아리활동은 공동체의식, 자기주도력, 성실성, 리더십, 기획력의 순으로 중요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은 이타심, 공동체의식, 성실성, 자기주도력, 자기회복력 등이 중요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활동은 목표의식, 전공적합성, 자기주도력, 도전정신, 기획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의 하위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자기주도력, 성실성, 공동체의식, 기획력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들 역량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되 각 영역별 특성에 따라 무엇을 보다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항목간 변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독서활동의 경우에는 자기주도력, 전공적합성, 성실성, 성장잠재력, 창의력을 알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역량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서류 양식을 수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는 역량은 성실성, 성장잠재력, 공동체의식, 리더십, 학업능력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설문에 제시된 역량 중 리더십의 경우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할 것을 사전에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3> 리더십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설문 결과

- ◎ 인화를 토대로 학급 및 학교 구성원의 공동 목표를 추구해 가도록 이끌면서 구성원을 하나로 만들어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니는 것
- ◎ 조직의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과의 조율을 순발력이 있게 해내어 구성원 간 조화로운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 ◎ 성실한 생활태도로 학교생활을 수행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따르게 할 수 있는 것
- ◎ 자신이 속한 조직(학급, 학년, 학교, 동아리 등)의 구성원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고무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가는 것
-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융합을 위한 협동심을 가지고 있는 것
- ◎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남을 위해 봉사하며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

2.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 내용 및 수준에 대한 인식

1) 평가준거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의 평가준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활용된 평가준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에 활용된 평가준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

평가준거	설문에 활용된 정의
타당도	진로와 관련되어 유의미한 활동/결과인가?
객관성	대내외적으로 검증받은 활동/결과인가?
투명성	실제로 본인이 활동/결과에 참여한 것인가?
신뢰도	학생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수상경력 항목은 타당도(29%), 객관성(41%), 투명성(16%), 신뢰도(14%)의 비중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평가준거 반영에 대한 인식

평가준거(%) \ 항목	타당도(%)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수상경력	29	41	16	14
자격증 및 인증취득	37	34	19	10
자율활동	25	10	44	21
동아리활동	31	5	35	29
봉사활동	7	12	48	33
진로활동	54	5	22	19
독서활동	25	3	44	2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9	15	28	38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의 경우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두드러졌으며, 각 항목 별로 살펴보면 항목 특성에 따라 상이한 평가 준거 비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평가영역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의 평가영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 활용된 평가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에 활용된 평가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

평가영역	설문에 활용된 정의
준비성	활동에 임하기 위해 얼마나 계획하였는가
활동의욕	활동 전반적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 태도로 임하였는가
활동참여빈도	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는가
지속성	활동에 얼마나 주기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실행력	기획한 것을 얼마나 실천하였는가
태도의변화	활동과정 중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가
공동체의식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잘 이루어졌는가
활동실적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는가
진보의정도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개인 및 팀의 발전이 있었는가
특기사항	두드러지는 학습자 특성이 있었는가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의 경우 요구 역량에 대한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 별 특성이 반영되어 활동을 통한 결과물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는 반면, 활동 중 학습자의 태도나 상호작용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등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7〉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평가영역에 대한 인식

항목 중요도순	1	2	3	4	5
수상경력	활동실적	활동의욕	준비성	특기사항	진보의정도
자격증/인증취득	활동실적	활동의욕	준비성	실행력	특기사항
자율활동	활동의욕	실행력	활동참여 빈도	준비성	공동체의식
동아리활동	활동의욕	공동체의식	활동참여빈 도	지속성	진보의정도
봉사활동	지속성	공동체의식	활동의욕	활동참여 빈도	태도의변화
진로활동	준비성	활동의욕	태도의변화	특기사항	진보의정도
독서활동	지속성	태도의변화	활동의욕	활동실적	활동참여 빈도
종합의견	특기사항	태도의변화	활동의욕	진보의정도	공동체의식

3) 평가내용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 별 평가준거 및 평가영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평가준거 및 평가영역에 대한 조사가 평가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틀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평가내용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틀에 맞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위한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 별 어떠한 내용이 평가 가이드라인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수상경력 항목의 경우 이를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 고교과정과 연계

된 것인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상장인가, 몇 명이 참가한 것 중에서 수상한 것인가, 수상 순위가 어떠한가, 수상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생의 희망전공, 특성,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가, 지원 전공 관련 수상인가, 사교육과 관계없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인가 등도 평가 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항목에 대해서는 진로 및 지원동기와 연관성이 있는가,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인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취득한 것인가, 사교육 유발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창의적체험활동 항목의 하위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주도적 활동 실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 활동이 있는가, 학교생활과 연관성이 있는가, 지원학과와 관련이 있는가 등을 평가 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동아리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주제적으로 활동에 참여 하였는가, 적성 및 특기와 연관이 있는가, 동아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 하였는가, 협력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가 등을 보아야 한다고 여겼다. 봉사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자발적 의도에 의해 참여 하였는가, 실제 봉사에 참여 하였는가, 봉사 활동의 일관성은 있는가,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봉사 활동 후 태도의 변화는 있는가, 봉사활동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경우 타항목에 비해 많은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봉사활동의 동기에 진정성은 있는가, 과도한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는 없었는가 등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진로활동 항목에 대해서는 진로 선택에 따른 노력이 있었는가, 진로 선택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진로탐색과 진로경험 간 관계가 있는가, 진로 희망에 일관성이 보이는가 등을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서활동상황 항목에 대해서는 책을 실제로 읽고 본인이 독서감상문을 썼는가, 책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가, 독서 후 행동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읽은 책은 진로 설정과 연관성이 있는가,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과 진도와 별개로 교양이나 다른 학문 영역의 기초를 쌓기 위한 책도 두루 읽었는가, 표절한 부분이 있는가 등도 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태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학생의 장·단점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학년별 학생의 활동이 변별되고 있는가, 구체적인 행동 관찰이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학생과 비슷하게 기록하였는가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의 입학사정관 평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입학사정관 평가가 학생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학생의 잠재 역량을 평가하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입학사정관 평가에서 학생의 잠재역량 평가에 근간이 되는 서류 평가,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한 고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를 대학의 입학사정관 평가 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평가를 위한 것인지 평가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1)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 역량과 2)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내용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 역량 분석 결과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각 항목 별로 어떠한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교활동을 기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도출된 역량을 중심으로 항목 간 비교 분석 한 결과, 눈여겨 볼 점은 항목 간 요구 역량이 비슷한

항목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의 경우 요구 역량이 모두 같게 나왔는데, 이는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세부영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평가에 활용할 경우 각각 다른 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항목을 구분함에 있어 같은 역량을 보는 항목이라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서류 양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비슷한 성격의 항목들을 한 항목으로 통합하고 이의 세부 내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상 및 취득’과 같이 한 항목으로 세목을 통합하고 그 내역을 교내/교외, 공인/비공인, 기관(명/규모) 등과 같이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학생의 학교활동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타당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우선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요구 역량에 따라 항목간 변별이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 간 기재내용에 변별이 생긴다면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 역량 분석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설문에 활용된 역량이 10가지로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역량의 종류 및 정의에 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설문에 제시되지 않은 역량을 선택하고자하는 경우 기타 의견란을 두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설문 결과 이 부분에 특별히 다른 역량을 기재하기보다는 대부분 제시되어 있는 역량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설문에 제시된 10가지 역량 내에서 선택이 이루어져,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제시된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없이 설문 조사가 실시되어 역량에 대해한 응답자 별 상이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가준거 및 평가영역에 대한 조사는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평가 가이드라인의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평가내용에 대한 결과를 적용하여 항목 별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입학사정관제의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부터 입학사정관의 역할, 정성적 평가로서의 입학사정관 평가, 교과 및 교과외활동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및 평가까지 거시적 및 미시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시사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실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정성적 평가에서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의 타당성이 결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내용 및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별 요구역량의 내용은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 입학사정관 평가 시 학생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자료를 통해 학교활동에 대한 학생의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의 평가자는 고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교활동 및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경우 왜곡된 평가를 내릴 위험이 있고, 이는 다면평가로서 입학사정관 평가의 결과를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하게 만드는 오차원인이 된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평가 대상이 되는 기재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내용 사이의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임에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학사정관 평가 시 실제 활용 가능한 평가 가이드라인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대학의 교육 이념 및 단과 대학 특성을 고려한 전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학 별 전형 특성에 비

취 적합한 항목을 선택한 후 해당 내용을 평가에 활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의 내용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입학 전형 시 실제 활용 가능한 대학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면 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측면 뿐 아니라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과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입학사정관제 및 입학사정관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 연구 결과의 활용과 더불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면평가를 위한 보다 다양한 대안적 평가 방안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 평가는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서류평가가 평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를 통한 정성적 평가는 잠재력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면접과 같이 실제로 학생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학생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잠재력은 이미 있는 결과물이 아닌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평가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활동을 통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시간, 비용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학은 원하는 인재 선발을 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찾아보아야 한다.

둘째, 대학에서는 교과활동 및 교과외활동 등 실제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의 학교활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외활동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성격은 어떠한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학생의 학교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점수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과정 중 하나임과 동시에 고교를 점수와 같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수직적 서열이 아닌 각 고교 특성에 따른 구분을 두는 과정으로서 고교 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평가체제 마련을 넘어 수직

적 서열에 의한 고교 등급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차세대 입시 대안으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및 정부교육기관에서는 입학사정관 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를 입시에 대한 일시적인 사회의 흐름이나 경향으로 인식하고 가볍게 대처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대학입시 및 선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대학의 교육목적 및 특성과 부합시켜 알맞은 인재를 선발하려는 취지를 지닌 바람직한 입시 제도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필요한 인재를 적합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은 대학을 넘어 사회 및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입학사정관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가져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승호·김명숙·김정환·남현우·허숙, 2003, 『현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성우·김성숙·황해익·김아영·김수연, 2009,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고찰”, 『교육평가연구』 22(3) pp. 587-614.
- 김성천·박종희·최현섭, 2006, “학생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한 교사와 대학입학관계자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14(1) pp. 233-259.
- 김수연·김시라, 2009, “입학사정관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평가 모형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3 pp. 35-58.
- 김홍원·정광희·남수경·강태중·백순근·강신일·박상도, 2005, 『2008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활용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혁신위원회,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선발제도와 평가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교육평가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박선형·박남기, 2008, “일본의 대학입시와 입학사정관제도”, 『비교교육연구』 18(3) pp. 207-230.
- 박혜립, 2009,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pp. 21-46.
- 성태제·권승아, 2009,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 실태와 입학사정관의 인식”,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1) pp. 95-118.
- 신현석·안선희·최보윤·신원학·이준희·정우진·주희정·정주영·김민정·엄준용, 2010, “대학입학 전형요소로서 대학 인

- 재상의 활용방안 탐색(입학사정관제에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2(1) pp. 265-291.
- 정일환, 2008, 『입학사정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탐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최현섭, 2005,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신뢰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지원부 정책연구과제.
- 허창구·신강현, 2010, “내재설계 평가센터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23(2) pp. 225-249.
- 황정규, 1984,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A Study on the Transcript Evaluation for Improving Validity of Admission Evaluation

Oh, Jung-eu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Measure of growth potential is more important rather than existing knowledge in human resource selection. It is not except college admission, an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is good evidence because it increases the number of new students more and more. Students who are selected through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are not on a small scale but social awareness is weak, owing to the distrust of potential evaluations and limitations of document evaluation. Actually, transcripts ar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college's criterion. The perception concerning transcript details is the difference between highschool and college, which leads to limitations regarding evaluation validity.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concerning student activity as well as the subsection of transcripts, and then analyzes how to apply proper document detail to each evaluation. Such a method will lead to seek for more better admission officer system and college admission policy as finding perception gap between highschool teacher and college admission assessor about transcript details.

Keywords : Admission evaluation, Transcript, Validity for evaluation, College admission policy